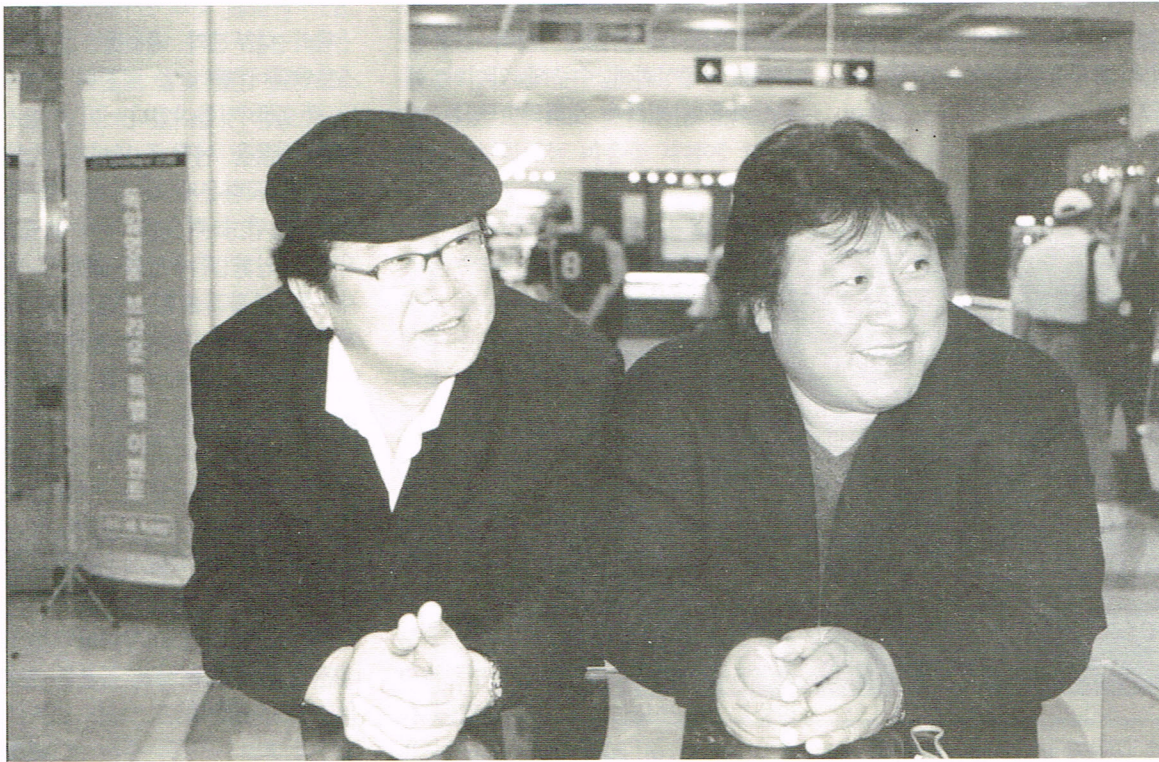


“해바라기 CONCERT” 오늘 저녁 7시



‘해바라기와 함께 하는 아름다운 약속’이란 제목으로 오늘 저녁 7시부터 대강당에서 해바라기 콘서트가 열린다. 교회에 익숙하지 않는 이들을 자연스럽게 교회로 초청하기 위한 전도행사로써 3개월전 교인으로 등록한 해바라기의 이주호, 이광준 집사와 함께 해바라기 멤버였으며 현재 주님의교회 음악기사로 사역 중인 조성곤 집사가 노래를 부른다. 퍼크션에는 자선일, 베이스기타에는 윤종부 씨가 수고해주며, 임동진 장로가 특별출연한다.

최근의 신곡 ‘아름다운 약속’에 이르기까지 해바라기의 주옥 같은 노래와 찬양이 선사될 이번 콘서트는 우리 주위에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친구, 이웃들을 교회로 자연스럽게 초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콘서트에 앞서 지하식당에서는 식탁교제로 진행되는 믿지 않는 가족, 친구초청의 시간도 있을 예정이다. 오후 5시부터 주차안내와 교회안내를 위해 차량부와 안내부에서도 봉사를 하게 된다.

청년부 워십댄스

11월 16일, 4부 찬양 페스티벌을 준비하며

행사를 넘어 전도의 의미를 가져

주님의교회 청년부 워십팀 Young Hon(영혼)은 ‘워십 프레이즈 페스티벌’을 준비했다. 11월 16일(주일) 오후 1시 30분, 4부예배를 드린 뒤 2부 순서로 ‘워십 프레이즈 페스티벌’을 연다. 이 행사는 주님의교회 청년부 주관으로 박상수 선생의 안무와 지도 하에 3개월 전부터 준비되어 왔다. 축제 분위기로 열릴 ‘워십 프레이즈 페스티벌’은 기독교인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활동적인 전도의 형태로 비쳐질 것이다.

그 날 열릴 페스티벌의 주제는 ‘갈망’이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청년부가 더욱 부흥하기를 원하는 갈망적인 요소와 더불어 워십댄스를 통하여 은혜를 간구하는 함축된 의미를 지니고 있다.

Young Hon은 새로운 찬양의 채널인 댄스를 통해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한다. 댄스라는 장르를 통해 역동적인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

타내길 원한다. 그들이 뛰고 땀흘리는 단 한 가지 목적이 또한 하나님 한 분만 위한 것임을 명확히 드러낼 것이다.

워십팀 Young Hon은 이번 행사가 단순히 행사로만 그치지 않고 찬양과 춤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안에 있음에 기쁨의 외침을 동작으로 표현하고 보여주려는 비전을 품고 있다. 그동안 한 곡 한 곡을 기도과 묵상으로 준비했고 곡마다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담고 있고 나타내었기에 그것을 기억하며 바라보길 기대한다.

Young Hon팀원들이 춤을 출 때 각자의 다른 모습들 가운데 하나의 완성된 공동체의 모습을 연출할 것이다. 모두가 다른 모습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사람들 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고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영혼팀은 이 행사가 내부적인 교회 행사를 넘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의 목적을 담고 있다. 이미 주님의교회 워십팀 ‘Young Hon’은 올 여름에 부산 워십투어를 다녀왔다. 드라마

와 찬양으로 부산 지역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왔으며, 다가오는 겨울에도 새로운 곡들과 다양한 드라마와 뮤지컬 등을 통해 다양한 범주의 찬양을 곳곳에 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일반 세상의 대중 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벽을 허물고 보다 쉽게 기독교 문화를 누구나

소화할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이 되고자 하는 취지와 포부를 가지고 있다. 그들이 찬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열정 그리고 은혜의 간구함이 보고 싶고 느끼고 싶다면 11월 16일, 오후 1시 30분 예배에 ‘Young Hon’ 팀과 함께 뛰어보자!

11월 4일 저녁, 수험생기도회

11월 5일, 수능시험이 정신여종교 교정에서 있게 되는데 그 전날인 4일 저녁에는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로 모인다. 수험생과 학부모, 구역 식구 등이 참여하여 수험생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1부 순서로 오후 6시 30분부터 7시 25분까지 교구별기도회가 장소

를 나누어서 열리게 되며, 교구별 장소는 아래의 표와 같다. 2부 순서로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전체기도회가 소예배실에서 있으며 담임목사의 말씀, 찬양과 기도의시간이 있다.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에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교 구	모임장소	교 구	모임장소
1교구	(4층)대회의실	5교구	(4층)소의회실
2교구	(4층)당회실	6교구	(5층)찬양연습실
3교구	(4층)교육전도사실	7교구	(5층)청년부 2실
4교구	(4층)교회학교사무실	8교구	(5층)청년부 1실

우진선 집사의 좋은 책 소개

김 진의 『중생 이후의 삶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10월 12일 김익수 집사·우 숙 권사 가정에서 좋은책읽기모임이 있었는데 중생이 무엇인지, 자기 존재의 바른 위치를 깨닫는 것도 구원의 의미를 갖는다는 것, 이 책의 많은 예화들이 실제적인 우리의 과거, 현재 문제들이기에 많은 공감을 나누었다. 이 책을 읽으며 나는 깊이 이해받는 느낌이 들었다.

이 책의 저자 김 진은 기독교신과 의사로 많은 그리스도인을 정신치료하고 상담을 해오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비교적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문제점들과 모태신앙인으로서 자신에게 발견되었던 문제들이 무엇이었으며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지에 대해 다루고 있다. 그중 중요한 물음은 다음과 같다.

① 너무 지나치게 희생하여 남들의 청을 들어주는데서 자기의 삶이 침범당해 자기 내면에 불만스러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표현하지 못하고 부

적절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② 내면적으로 분노에 차 있고, 슬프고, 아프고, 부끄럽고, 심지어 애통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방긋 웃는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③ 우리 내면의 모습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웃는 얼굴보다는 정직한 모습으로 만나는 자유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을까?

④ 우리의 외식과 위선이 감정의 병들과 정직의 회생을 가져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⑤ 부족한 현재의 모습을 존재적으로 규정해 버리고 자신과 타인 모두에게 똑같은 판단을 하며 자기와 남이 자랄 수 있도록 기다려 주는 마음의 여지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가?

⑥ 결코 현재 달성될 수 없는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짐스럽게 느끼고 낙심과 좌절을 느끼면서 자신과 타인에게 판단적이고 율법적인 모습은 아닌가?

⑦ 중생이 되자마자 지향적 목표를 이루는 최종성화의 수준에 있어야 한다고 복음의 핵심을 오해하고 있는 것

은 아닌가?

⑧ 삶과 인격의 변화는 동반되지 않는 가운데 지향적 목표에 빨리 노출되면서 목표에 대해서만 알게 됨으로 삶에 지시적 경향이 생긴 것은 아닌가?

⑨ 뇌의 연구로 밝혀진 발달 장애라 하는 자폐증, 뇌발달 이상에서 오는 정신분열증을 신체적 차원의 문제인데도 심리적 차원, 영적 차원으로 보는 오류, 영적 차원의 문제를 심리적 차원의 문제로만 보는 오류, 심리적 차원의 문제인데도 무조건 영적 문제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가?

위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 번쯤 성찰해 보아야 하는 중요한 것들이었다. 이 책은 중생 이후의 삶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의 결여를 다음과 같이 맺고 있다. 첫째, 부끄럽고 미숙한 자기 모습을 정직히 확인한 후에 하나님께서 받으신 자기를 비판적으로 포용한다. 둘째, 자기의 현재적 수준을 정확히 평가하여 성경의 지향적 목표를 정점으로 하는 현재적 목표를 설정한다. 셋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당장은 아니지만 꾸준히 지향적 목표를 향하여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목표에 점점 다가서리라는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 목표와 실제 사이의 긴장을 마다하지 않고 견뎌 내면서 한걸음 지향적 목표를 향해 걸음을 쉬지 않는다.

해외선교부를 소개합니다

“해외선교부에 가입하면 해외에 자주 나갈 수 있나요?” “선교사 파송지원 외에 직접 해외선교도 하시나요?” “해외단기선교도 해외선교부에서 주관하시나요?”

해외선교부를 맡고 나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다. 그 외에 개인적으로 친분이 계신 분이나 또는 선교사가 모 지역에서 선교활동을 하고 있는데 본 교회의 지원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조용히 물어오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다. 자주 접하는 바로 이런 부류의 일을 결정하거나 주관하고 지원하는 것이 바로 해외선교부의 주된 임무이고 맡겨진 과제이다.

15년의 짧다면 짧은 본 교회의 선교 역사 중 아직까지 해외선교분야에 팔목할만한 성과나 자랑할만한 선교지를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은밀한 중에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선교 열정은 해외로 조용히 흘러나가고 있으며, 현지에서는 나름대로 아름다운 선교의 꽃을 피우고 있다. 현재 본 교회가 직간접으로 지원하는 해외 선교지는 본 교회 단독으로 파송하고 지원하는 태국과 캄보디아이며, 부분적으로 후원하는 곳은 남아공, 중국 외 3개 지역, 그리고 주님의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목사님이 섬기는 2개 지역이 있다.

세계 각국의 선교현장에서 본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모두 수용할 수 없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본 교회가 추구하는 해외 선교 방향은 선정된 지역을 특화 심화시키고 장기적으로 지

포토에세이



예배를 드린 해바라기의 이주호, 이광준 집사가 콘서트 준비에 대해 담임목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왼쪽부터 이주호, 이광준, 조성곤 집사).



10월 23일, 구제부원들이 콘테이너 생활을 하는 전국 213가구 수해민에게 지급할 난로 213대를 기증하기 앞서 '한국교회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라는 문구의 인쇄물을 붙이고 있다.

역 복음화 외에 그들에게 다양한 투자와 교육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접목시켜 보다 윤택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해외선교를 위한 교우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선교헌금과 열정 어린 기도 또한 물론 필요하겠지만 몸소 선교현장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보람된 일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해외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교우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으니 망

설이지 말고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체험을 해 보기를 그리고 안아보고 만져보고 뜨거운 눈물까지 한 번 흘려보기를 권한다. 해외선교부는 해외 선교의 진정한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기도하며 그리고 동참을 원하는 평신도 동역자에게 항상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다.

김경덕 안수집사



우진선 집사



도서실에서 알립니다

5층 로비에 꽃과 차가 있는 조출한 카페를 열었다. 지난 9월 29일에 개관된 도서관 바닥에 카페트가 깔려 있어 음료 및 먹을 것을 지참하지 말도록 권했는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우들이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기를 위하여 도서부에서는 5층 로비에 차를 마시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예쁜 공간을 마련했다.

특히 봉사부에서 주일이면 커피와 차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며, 예식부 꽃꽂이팀에서 토요일 예식후에 아름다운 꽃을 보내주겠다고 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교우뿐만 아니라 5층을 찾는 모든 교우들의 즐겁고 유쾌한 교제의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읽기를 원하시는 희망도서나 권하고 싶은 추천도서가 있으면 도서관 입구 메모판에 쪽지를 남기면 된다.

청년부 새벽이슬 유상렬 전도사에게 듣는다

찬양팀에는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가 관건

새벽이슬과 함께한지도 8개월째이다. 처음 리더로 설 당시 새벽이슬의 상황은 조금 어려웠다. 팀 전체적인 느낌이나 개개인의 표정도 밝지는 않았다. 여러 가지 갈등 중의 가장 커다란 문제는 교회에서 바라는 새벽이슬과 멤버들이 만들고 싶어하는 새벽이슬이 달랐다고나 할까? 그 당시 새벽이슬은 잘 하려고 했었다. 잘 하려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에게 음악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그것과 반대로 행동을 했다. 연습시간도 반으로 줄이고, 실수를 해도 뭐라고 안하고, 늦거나 결석을 해도 반갑게 맞았다. 그냥 그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보다 더 젊었을 때는 잘하려고 노력도 많이 했다. 연습도 많이 시키

고, 실수하거나 연습시간에 늦으면 혼내고 잔소리도 많이 했었는데 그럴수록 팀은 어려워졌던 경험이다. 내 경험으로 보건데 교회의 찬양팀이 잘하려면 실수도 많이 해야 하고, 너무 잘하려는 부담보다는 많이 놀아야 된다는 게 나의 생각이다.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놀기만 한 것 같다. 물론 지금은 과거보다 좋아졌다고 물으신다면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 다만 힘들어하고 있었던 멤버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싶었고 잠시 리더를 맡았던 것이기에... 이제 어느 정도 편했으니까 이제는 마음을 새롭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바라는 새벽이슬은 음악적으로 너무 잘하려고 애를 쓰기보다는 팀 전체가 즐겁고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다. 그렇다고 음악적으로 잘하는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

다. 전문가처럼 음악을 잘하기가 쉽지 않고,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 마음의 부담과 상처가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기기 쉽다.

새벽이슬이 앞으로 더 해야 할 숙제는 어떻게 하면 더 재미있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드느냐이다. 진정한 영성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좋은 분위기가 자리 잡으면 사람들 얼굴이 달라질 것이며, 점점 조직력이 극대화가 되어 다른 사람들이 보았을 때 실력적인 면에서, 영적인 면에서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교회 안에서만 머무는 팀이 아닌 더 넓고 새로운 무대를 갈망하는 팀이 되어가기를 바란다.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어 갈 수가 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를 이끌어가는 새벽이슬이 될 것을 기대한다. 또 그렇게 되리라 확신한다.

유상렬 전도사



교회말 바르게 알고 바르게 씁시다

‘미망인’ 대신 ‘고인의 부인’ ‘고인의 유족’으로

미망인(未亡人)이라는 용어는 순장(殉葬)제도에서 유래된 말이다. 순장이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죽음을 뒤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강제로 죽여서 먼저 죽은 시신과 함께 묻는 장례 풍속을 말한다. 이러한 풍속은 고대 중국의 은나라와 이집트를 비롯하여 아프리카 지역에서 성행하였다. 특히 인도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따라 분신 자살하여 순장되는 ‘사티’라는 풍습이 1829년 법으로써 금지되기까지 존속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신라의 22대 지증왕 3년(주후 502년)에 왕명에 의하여 순장 금지되기까지 이러한 제도가 존속되었다.

이런 순장제도가 성행할 때나 쓰일 수 있었던 ‘미망인’이라는 용어의 뜻을 풀어보면 ‘남편이 죽었기에 마땅히 죽어야 할 몸인데 아직 죽지 못하고 살아있는 여인’이라는 뜻이 된다. 이러한 용어의 뜻을 알았을 때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말임을 깨닫게 된다.

〈기독교용어연구회 제공자료〉

잠시 떠나 MT를 갔었는데 우일강 권사님의 배려로 이천에서 맛깔스러운 이천쌀밥과 밤이 늦도록 애기꽃을 피우며 주안에서 한 구역식구된 기쁨과 우정을 나누었던 일이 새롭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되어 살아가는 동안 주어지는 신성한 선물같은 것이 아닐런지요.

저희 구역식구 모두는 먼저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그런 구역이 되면 좋겠습니다.

김영희 집사



1-7구역탐방

5살짜리 구역식구도 기다리는 구역모임

저희 1-7구역은 봉천, 사당 지역을 중심으로 상도, 방배 지역까지 포함된 넓은 지역의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역사정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구역구성원은 어른부터 어린아이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이고 있으며, 모이게 되는 가정은 예배드리기에 알맞은 안정되고 정돈된 분위기와 계절에 맞는 다과를 준비하여 은혜로운 예배와 정겨운 성도의 교제가 조화롭게 진행되어진답니다.

구역장이신 권순영 집사님은 직장생활로 바쁜중에도 구역장으로 섬기면서 성실한 자세로 모임을 이끌어나가는

분이시고, 부인 김화순 집사님은 발을 다쳐 걷기 힘든 중에도 업히기까지하면서 구역예배에 참석하시는 그 열심이 잔잔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제가 이 글을 쓰기 위하여 무엇을 쓸까 구역식구들에게 묻자 구역을 위하여 2년이나 모범권찰로 섬기신 홍성현 집사님 자기 일을 쓰면 되지 않는냐는 말에 예배마치고 내려오던 엘리베이터 속이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식구들은 한 분 한 분 개성 있고 믿음의 분량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현표 안수집사님, 김지자 권사님 내외분은 두 분 다 하얀머리가

멋진 분들이신데 연장자로서도 투철한 신앙심으로서 예배분위기를 안정되게 이끌어 주시고, 이동순 권사님은 해박한 지식과 경험으로 대화를 주도하시며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신데 발을 다쳐 자주 참석하지 못하여 낮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빠질 수 없는 구역원이 있는데 조유민이라는 다섯 살난 구역식구로 처음 예배에 엄마와 함께 참석했을 때 어른들만 있는데 아이가 어떻게 예배시간을 견딜까 걱정했지만 그것은 완전히 헛걱정이었습니다. 얼마나 구역예배 시간을 기다리고 잘 노는지 매일 우리 집에서 구역예배드리면 좋겠다고 한답니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구역식구이지요. 그 엄마인 정혜옥 자매를 보면 그 엄마에 그 딸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정혜옥 자매는 아직 처녀처럼 젊고 예쁜데 학교강의로 바쁜 일과를 보내지만 특별한 일외에는 꼭 구역예배에 참석하고, 여름수련회에도 남편과 유민이와 적극 동참하여 우체통을 관리하면서 부지런히 편지를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애기는 지난 봄 저희 여성구역원들은 남편들을



포토에세이



방송실에서 동시통역봉사자가 담임목사의 설교를 영어통역하고 있다.

음향기사 조성곤 집사에게 듣는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10월 26일, 3부예배를 마친 뒤 주님의교회 음향기사 조성곤 집사와 친교실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예배를 마치고 음향관리를 하느라 이어폰을 꽂고 점검하고 있었다. 인터뷰 중에도 계속 멈추지 않고 점검을 하고 계산 모습이 인상 깊었다.

문1) 해바라기 멤버로도 활동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전에 하시던 일이나 교회 오시게 된 사연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음향사역을 하게 된 것은 주님의교회가 처음입니다. 그전에는 주로 가수로서 활동을 해왔고 때론 음반제작자로, 공연 기획자로, 음향회사와 조명회사, 이벤트 회사를 운영하기도 했었어요. 음반 제작자로 활동할 때 남긴 가장 대표적 앨범은 부활 5집인데요, 무명의 박완규(천년의 사랑)를 발굴했기 때문에 가장 기억에 남아요. 그전에는 강인원 씨와 '비오는 날 수채화' 작업을 했구요, 민해경의 '보고싶은 얼굴'을 기획, 제작했었어요.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앨범의 매니저먼트도 했었습니다.

한때 잠깐 해바라기 멤버로 활동하기도 하였지만 해바라기라는 이름으로 제가 방송을 나간 적은 없는 불운한(?) 해바라기였어요. 오히려 방송활동은 1993년부터 강인원 씨가 제작한 '느티나무 언덕'이라는 프로젝트 앨범에서 매니저먼트와 가수로 겸임 활동을 하면서 2~3년을 집중적으로 했어요. 열린 음악회도 나가고 각 방송국의 음악 프로그램에 곧잘 나가기도 했었죠. 지난 1998년에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어 점차 세상 노래를 안하게 되었구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온누리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로 활동해 왔어요. 지난 4월에 호주에서 귀국하고선 곧바로 미국에 신학대학을 가려던 중에 시험준비하면서 주님의교회를 몇 주 출석하다가 그만 주님의교회 음향기사로 갑작스럽게 일하게 되었어요.

문2) 음향사역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음향사역이란 구체적으로 예배의 통로가 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소리를 영적인 소스로 재편성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가격의 기준으로 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말입니다. 미국의 음향 시장 중 매년 최신 음향을 50% 이상 소화하고 있는 곳은 미국의 교회들입니다. 교회사역에 있어서 음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예라 할 수 있습니다. 거친 소리, 찢어진 소리, 또는 아주 메마른 소리로 말씀이나 찬양을 듣는다면 영감도 그만큼 영향을 받아 마음을 달리게 합니다. 반대로 아름다운 소리는 영적인 통로, 찬양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엔 교회 음향수준과 기술적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교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향의 필요성과 그 수준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접근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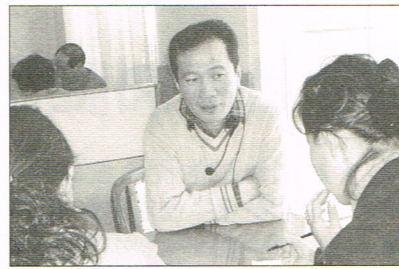
문3) 강당 음향설비공사가 진행중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지요?

지금 주님의교회 음향은 얼마 전 방 송사고로 인하여 개보수 작업을 진행중입니다. 지난 9월초에 정신여중고 행사 시 과도한 사용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강당시스템의 용량은 설교 용으로 음악집회나 행사용으로는 부적합한 것입니다. 설교용으로만 사용하면 괜찮지만 강제적인 방법으로 악기와 함께 음악용으로 쓰면 시스템의 용량에 무리가 따릅니다. 건반이나 베이스 기타 같은 일렉트릭 악기의 소스는 일반적 마이킹에서 오는 소스보다 순간 출력이 몇 배나 높습니다. 그런 악기들을 콘솔에 바로 꽂아 사용하면 콘솔의 수명과 앰프 또는 스피커의 기능과 수명에 결정적인 위해를 가하게 됩니다.

제가 5월에 음향기사로 근무를 시작하면서 보니 이미 음향 콘솔의 16채널 중에 정상적인 채널은 몇 개 없었습니 다. 학교행사 시에는 방송부 학생들이 음향을 만져왔는데 전기기타나 건반 등 모든 일렉트릭 악기를 콘솔에 직접 꽂아 사용해보면서 콘솔의 기능을 계속적으로 약화시켜 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약화된 콘솔은 개별 채널의 약화로 이어지고, 또 다른 과도한 사용을 통해서 어느 순간에 앰프들이 망가지게 되는 사고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에서 아무 일없이 예배를 드려왔던 것은 양호한 단 몇 개의 채널만을 이용해서 출력이 그리 많이 필요하지 않은 형태의 최소한의 사용을 해온 것입니다. 기본 성능의 20%만으로 사용해 오던 중 지난 9월초 일주일내내 하루종일 진행된 정신여중고 행사 마지막 날 토요일 오전에 스피커를 비롯 앰프가 완전히 아웃되어 버렸습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학교행사 시에도 교회에서 음향기술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화요일은 중학교의 아침예배가 있고 목, 금, 토요일은 고등학교에서 아침예배가 있습니다. 음향설비는 한 번 설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고가의 장비이므로 기술적인 특성과 용량을 잘 알고 적합하게 관리하며 사용해야 오랫동안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서 그간 자원봉사해 오신 분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의 음향, 영상 공사는 11월 9일 정도에 마무리 될 예정이며 대부분의 공사는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사의 범위는 음향, 영상 회사들과 각 시공 전담 회사, 인테리어 업체 등 5분 야의 전문가들이 동시에 집중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데 대, 중, 소예배실 뿐



만이 아니라 그동안 많은 불편을 호소했던 소예배실, 찬양연습실, 유치부, 유아부, 식당 등 전 강당의 각 방들의 음향과 영상 서비스를 네트워크합니다.

문4) 앞으로의 계획이나 개인적인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상적으로 살 때는 제게 일어났던 개별적 사건들은 결코 서로 그 어떤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 했었지만 하나님을 영접한 후로는 지난 47년간의 삶의 격랑을 통해 저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사건이 하나도 우연이 없었음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신 사랑을 겪을수록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됨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지난 삶의 잠시 화려함에 대한 미련과 복귀에 대한 집착이 몇 년동안 저를 때마다 실족케 하였고 아무 것도 남지 않았다고 울부짖는 가운데 한동안 주님을 원망하고 끝없이 절망하고 좌절하기도 했었습니다. 어린 가족을 이끌고 미국으로, 호주로 문제를 피해서 도피하기도 해 보았습니다.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저는

저의 본질적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저의 참된 모습을 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고 말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병든 자였습니다. 그 때 다시 한 번 주님을 깊이 만나게 되었고 주님께서 주신 영감과 감동에 주체할 길이 없어서 호주에서 어느 깊은 밤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옮겨 적었습니다. 그것이 가사가 되었고 그 가사에 곡을 붙여서 하나님께 깊이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고요.

제 남은 인생을 주님이 바라시는 대로 살아져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긴 하지만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올해 음향사역으로 잘 감당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본연의 자리인 찬양사역자로 섬기기를 또한 바랍니다. 찬양을 드릴 때 저의 삶은 가장 기쁘고 보람되며 제 삶의 바른 자리임을 경험적으로 느낍니다. 찬양은 저의 존재 가치입니다. 참으로 긴긴 세월의 갖은 경험을 통해서 듣게 된 주님의 부르심이자 초대임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주님의 교회에서 음향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지난 날의 저의 모든 경험을 들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들어 쓰시는 주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바라보면 마음 속에 쌓이는 많은 갈등과 외로움, 서운함이 눈 녹듯 사라집니다. 그저 감사할 밖에도,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소식

▶유아세례식

유아세례식이 11월 5일 오후 8시, 수요성경공부 시간에 있습니다.

▶입교 및 세례식

입교 및 세례식이 12월 3일 오후 8시 수요성경공부시간에 있습니다. 입교 및 세례를 원하는 분은 11월 9일(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매주일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30분에 제3집회실에서 4회 있을 입교 및 세례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는 유아세례를 받고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어야 하며, 세례는 6개월 이상 신앙생활을 하고 나이가 만 15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제출 및 임시사진관 운영

2004년 교인사진수첩제작을 위하여 사진을 받습니다. 그동안 사진을 내지 않았으신 분과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5년 이상 지난 교우들도 교회사무실로 다음 주일 11월 9일(주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11월 9일)까지 교회현관에 임시사진관이 마련되니 주중 사진을 준비하지 못하신 교우들은 즉석 촬영에 적극 협조바랍니다. 또한 교인사진수첩에 기재된 주소, 연락처가 바뀌신 분은 사무실에서 기재사항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6일까지 기재사항변경신청을 받습니다.

▶목요모임 봉사자 모집

예수전도단과 함께 하는 목요모임(매주 목요일 오후 8~9시)의 안내 및 진행 도우미로 봉사하실 분을 찾습니다. 자원 봉사연결 안내데스크로 문의바랍니다.

▶도서실 주일 오픈 8시 30분

도서실이 주일에는 오전 8시 30분부터 개관됩니다. 1부예배에 참석하는 교우들의 이용을 바랍니다. 도서실은 주중 매일(월요일은 휴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언제든지 이용가능합니다.

▶성지순례단 2차모임

다음 주일(11월 9일) 오후 1시에 4층 대회의실에서 성지순례를 위한 2차준비모임을 갖습니다. 성지순례 신청서를 작성하신 분은 전원 참석바라며, 혹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미리 이창현 목사(011-466-4736)에게 연락바랍니다. 순례의 일정확정과 여행사 섭외, 예약, 총무, 회계 선출을 하게 되니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고 내)
전화 : 02-416-5181
홈페이지 : www.pcltv.org

◆기사제보안내◆

기사를 주실 분은 각 기관 담당 취재자에게, 합종합을 관련사항은 이창현 목사에게 문의바랍니다.

▶핸드폰 : 011-466-4736
▶이메일 : chhylee@korea.com